



▲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임직원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신동주 SK주식회사 사회공헌팀장

‘행복한 대한민국’은 SK주식회사가 추구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목표이자 철학이다.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사회문제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에너지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 미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임직원의 노력봉사도 병행한다. 희망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함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SK(주) 자원봉사단인 ‘1004단’과 연계한 자원봉사가 그것인데 복지(장애인, 노인) 및 교육(청소년), 환경 분야 등을 주요 활동 분야로 삼고 있다.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SK는 지난해 3월 범 국가적으로 투명사회 협약을 맺은 후, 기업차원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공헌을 대폭강화하기로 하고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SK의 경영이념인 행복극대화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며, 특히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SK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NGO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치고 있다. YMCA, 부스리기사랑나눔회와 함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약1,5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사업은 빈곤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초 개소식을 시작으로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과 봉사로 ‘나눔’ 정신 실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그램이 꼽을 수 있다.



▲ 헌혈로써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천사단’

오래전부터 겨울철 ‘따뜻한 겨울나기’ 활동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랑의 연탄나눔’, ‘보육시설



▲ 좌로부터 '사랑의 김장나누기'와 '사랑의 점심나누기'를 펼치고 있는 SK임직원들

난방비 지원' 등의 Program을 시행해온 SK(주)는 지난해 전국 각지의 YMCA와 함께 한달간 총 8만 4천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궈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등에 전달하였다.

'사랑의 연탄나눔'에서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주), SK네트웍스, SK엔론, SK가스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임직원과 CEO들이 총 4000가구에 120만 장의 연탄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아동복지 시설 274곳에 18억원 상당의 난방油和 난방비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11월부터 진행되는 SK(주)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앞두고 '1사1촌' 마을인 강원도 횡성군 어둔리 마을과 1만포기 이상을 계약하여 소외계층을 도우면서 농촌돕기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 10만 포기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SK임직원, 가족 및 SK고객, 주유소, 충전소 관계자들의 참여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을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SK사회공헌의 정신이다. 대표적으로 '소년소녀가장 돕기'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고객이 주유소 충전소를 방문할 때마다 10원씩 적립하여 소년소녀가장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 밖에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 인근 초등학교 결식아동들에게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 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 유자녀들을 지원하는 '행복날개 장학사업', 한센병 환자 및 한센인 2-3세를 위한 'SK행복날개 기금' 전달 그리고 매월 장애우 커플에게 SK(주) 'OK Wedding Club' 과 연계한 '행복 결혼식' 등 다양한 '나눔'을 펼치고 있다.

이익의 사회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활동에



▲ SK가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여 울산시에 기부한 울산대공원

국한하지 않는다. 특히 SK(주)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조성한 친환경공원인 울산대공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Sk는 울산 남구 옥동 110만평의 부지 위에 10여년간 총 1,020억원을 들여 1차13만평(시설부지), 2차11만평(시설부지)의 공사를 올해 4월에 완공하여 울산 광역시에 무상 기부했다.

또한 마라톤 경영인으로 유명한 신현철 사장과 임직원들은 매년 마라톤에 출전하여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를 병행한 후, 이를 통해 모금된 금액과 동일한 회사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아진 성금 2억여원을 전국 불우이웃들의 명절선물 등에 전달했다. 이와 같이 최고경영자(CEO)부터 전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SK(주)는 기업이 사회에 경영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여기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SK(주) 신현철 사장은 “기업은 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변화의 원동력이다”며 기업이 앞장서 나가야 함을 늘 강조하며 임직원들에게 사회공헌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기부금을 포함해 SK(주)가 올해 지출하는 사회공헌 활동 비용만도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전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전 임직원의 45%에 이르는 2,300여명이 각각 평균 11시간, 총 2만6천여 시간에 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렇듯 SK(주)는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향후에도 사회의 힘이 되는 기업,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행복극대화’를 향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